

예술작품으로 만나는 시인 김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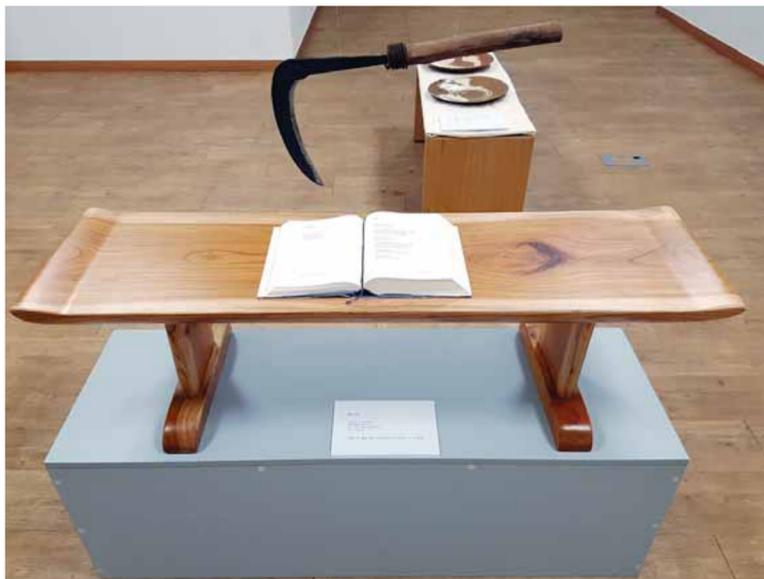


김남주 시인

시 소재 그림·설치작품·도자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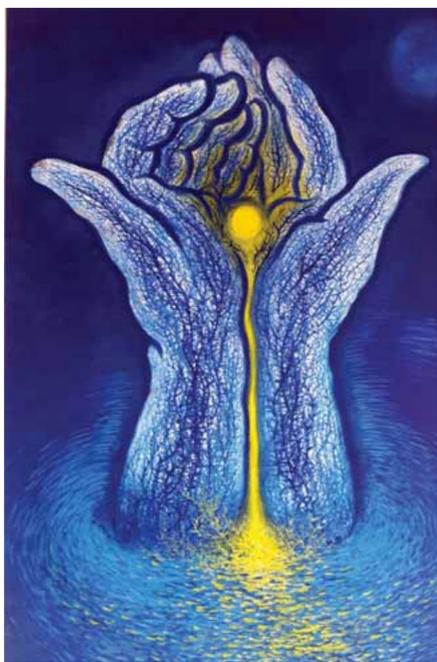
작가 16명 참여 40여점 출품

수익금 김남주기념사업회 기금 사용



김진송 작가가 김남주 시 '중과 주인'(원제 '낫')을 주제로 제작한 동명의 설치 작품.

김남주 시그림전 '시시(詩詩)한 남주-빈사(瀕死)의 달' ~30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윤세영 작 '새달'

“만인을 위해 내가 노력할 때/나는 자유이다/땀 흘려 험악 일하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만인을 위해 내가 싸울 때/나는 자유이다/피 흘려 함께 싸우지 않고서야/어찌 나는 자유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김남주 시 '자유')

2016년 대한민국은 1000만 촛불이 어둠을 밝히며 민주주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한숨과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현실을 서정적 필체로 대변해주던 고(故) 김남주(1946~1994) 시인이 생각나는 시기다.

19일 방문한 광주시 동구 갤러리 생각상자에서는 미술로 승화시킨 김남주 시어(詩語)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김남주 시그림전 '시시(詩詩)한 남주-빈사(瀕死)의 달'이다.

이번 전시는 김남주기념사업회(회장 김경운 시인)가 주최하고 전남문화관광재단, 해남군, 해남민예총이 후원한다. 전시장을 들어서면 김남주 시인을 좋아하는 전국 작가 16명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소재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작업한 회화, 설치, 도자기 등 작품 35점을 만날 수 있다. 전봉준, 새, 작은 집, 아나네 등 시적 소재들은 새생명을 얻어 캔버스에서 관람객들을 맞이했다.

김경운 회장은 “이번 전시는 그림과 만난 김남주 시를 전시에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목적인다”고 소개했다.

입구에 배치된 이준석 작가의 '산국화'는 동명의 시가 주제다. 여명을 배경으로 만개한 분홍, 하얀 산국화는 “썩일 듯 꺾이지 않는” 굳은 절개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김진송 작가의 설치작품 '중과 주인'이다. '낫 놓고 '자도 모른다'고/주인이 종을 갈보자/종이 주인의 목을 베어버리더라/바로 그 낫으로'를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낫시줄

로 실제 낫을 매달아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가장 많은 쓰인 소재는 '새'였다. 작품 '새가 되어'를 모티브로 하진 전남대 미술대학 교수, 윤세영·정호진 등이 작업했다.

허 교수는 또 '내가 만일 화가라면'을 화폭으로 옮겼다. "내가 만약 화가라면/나는 그리지 않을 것이다/몸에 상처 하나 없이/미끈한 나무는..." 무조건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현시대를 비판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은 시인이나 화가나 모두 같았다. 허 교수는 활짝 웃고 있는 김남주 얼굴을 어두운 청색으로 채색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우성 작가는 좀 더 현실을 반영했다. 시 '자유'를 재해석한 '자유'의 초상'은 시위를 하고 있는 한 노동자가 등장한다. 삭발을 하고 가슴에는 시위문구가 적힌 띠를 둘렀지만 입가에 띠 희미한 미소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다.

차규선 작가는 "나의 이름은/2164 붉은 딱지입니다"로 시작하는 '나의 이름은'을 설치작품으로 만들었다. 네모난 나무 상자 안에 붉은 바탕 속 '2164'가 선명하게 보이는 옷을 배치했다. 정기현 작가가 우유곽에 그린 '수인의 잠'은 감옥 속에서 겪었던 고초를 전달한다.

김남주 시인은 감옥에 있을 때는 주로 저항시를 쓰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서정시를 많이 썼다. 조병연 작가는 '길', 박봉영 작가는 '동행', 김천일 작가는 '돌맹이 하나', 박문중 작가는 '작은 집'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 판매 수익금은 김남주기념사업회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김남주 시인은 박정희 정권 때 모진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저항하신 분이요”며 “다시 김남주 시인이 그리운 시기에 시와 그림을 마음을 달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0-8611-6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임기준 작 'P-island'

문화예술 플랫폼 'MBA' 회원전

23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문화예술 플랫폼 MBA(Memory Bank of Art)가 23일까지 '이미지의 수사학-익숙한 것들의 반란'을 주제로 조선대 미술관에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에서 쉽게 발견되는 차용 이미지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동시대 미술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승찬·김병택·배수민·신호운·임기준·이이남 등 회원 6명이 참여해 회화, 부조,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디지털프린트 '자취의 현대사-배부른 돼지들'을 출품한 권승찬 작가는 현대 사회 문제를 경험에 빚대 이야기한다. 김병택 작가는 'Ace of sorrow' 등 트

럼프 카드에 현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대입해 은유적인 메시지를 위트있게 전달한다.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는 고전 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모나리자 페하'는 일차원 회화를 공간감각적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이다.

그밖에 신호운 작가는 성상(聖像)과 영웅상을 종이 조각으로 재구성하고 배수민 작가는 유명인을 반부조 형태로 오마주하는 작업을 펼친다. 임기준 작가는 강렬한 색채, 사실적인 표현으로 현대인 욕망을 작품에 담는다. 19일 오후 4시 개막식에서는 '동시대 미술, 차용을 말하다'를 주제로 작가와 비평가가 함께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7832. /김용희기자 kimyh@

최정아 작가 첫 개인전 내일까지 DS갤러리

최정아 작가가 '숨·바꼭질-마음 속에 숨겨진 상자를 열어보다'를 주제로 DS갤러리에서 21일까지 첫번째 개인전을 연다.

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현대적 소재를 한국화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여백을 듬뿍 사용하며 현대적 색채에 전통미를 더했다.

작품 '흔적'은 어느 여성이 든 네모난 가방이 소재다. 가방 표면에는 빨간 딸기가 짓물린 흔적이 남아 있다. 작가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의미있게 바라보며 스스로의 내면을 되돌아 본다.

'숨'에는 커져서 쌓인 여행 가방 위에 앉은 한 여성이 등장한다. 양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감고 사색하는 모습은 일상 속 휴식이 느껴진다.

작품 '·'은 두개의 캔버스로 구성된다. 한쪽에는 무표정한 여인이 의자에 앉아 있고 다른쪽에는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있다. 침묵과 여유, 사색과 힐링이 엮여있다.

최씨는 전남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한



최정아 작 '바람, 길'

국화 전공을 졸업하고 제31회 광주·대구·부산·전북미술교류전(대구), 지역감성청년작가교류전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예맥회, 현대사생회, 미술인모임 '세발까마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33-391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광식·양계남·김재일·하철경·김병모·정 철·김효삼·박은수·고희자·신은학·한갑수·장규오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12인 초대전

"문화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Opening : 2016. 12. 23(금) pm 5:00

기간 : 2016. 12. 23(금) ~ 2017. 1. 23(월)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M갤러리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062)222-0072 (예술의거리 서문입구)

KGC Korea Golf Coop 대한골프협동조합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 공헌사업
골프동호회 육성/골프장나무 지원

화순CC, JNJ, 영광CC, 아크로, 화순엘리체,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향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신,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062)371-1800 · 010-6270-1879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